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소득계층별 여가 행태의 현황과 추이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소득계층별 여가활동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소득이 높은 집단은 여가활동과 관련해서 시간은 부족하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여가활동 시간은 가장 많으나 실제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가장 적었다.
-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더 많았으며,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여가생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소득이 낮은 집단은 고연령 집단의 분포가 높아, 60대 이상 고령 집단이면서 소득이 낮은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용 지출이 가장 낮았다.
- 소득이 가장 낮은 3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4명 중 3명은 1년 동안 한 번도 영화를 관람하지 않았으며, 건강상의 문제나 시간 부족의 이유로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국내여행을 하는 횟수나 일수, 그리고 여행 지출비에서 소득 간 격차가 나타나며, 해외여행 경험률은 소득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필요한 대표적인 자원으로는 시간과 금전이 있다. 여가 개념이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사람이 생존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주로 수면, 식사,

개인위생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하므로, 여가활동을 위한 자유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여가활동은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관련된 금전 자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강하다. 물론 모든 여가활동이 비용을 지불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가활동과 관련해서 금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실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예측은 이러한 자원 사용과 연관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여가활동을 하고, 더 많은 비용을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하는가? 여가활동에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소득이 낮은 계층이 실제 여가활동을 적게 하고 있는가? 소득계층별로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 인식, 그리고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행조사」, 「국민생활체육조사」 등 통계청 승인 통계 자료들을 분석하여 답하고자 한다. 이런 자료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4년 원자료를 구하여 소득계층 구분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



로 소득계층을 구분할 때는 평균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위의 모든 조사의 가구소득이 구간 값으로 조사된 까닭에 각 조사의 구간 값의 비율을 고려하여 300만 원 미만, 300만 원~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소득계층별로 여가활동의 특성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여행 등 대표적인 여가활동에서 나타난 소득계층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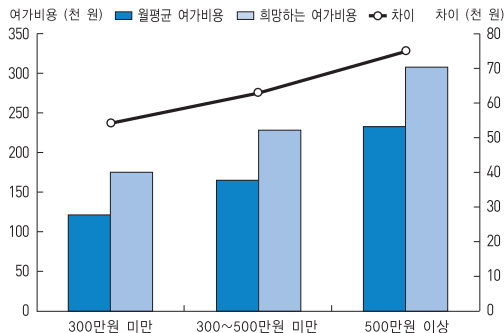
소득계층별 여가활동 실태

소득계층별 여가활동의 자원 이용과 활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소득이 높은 집단과 소득이 낮은 집단은 여가활동을 위한 자원 사용과 여가활동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은 소득이 높은

집단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은 소득이 낮은 집단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여가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여가비용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300만 원 미만인 집단(121,414원)의 약 1.9배인 232,914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희망하는 여가비용과 월평균 지출하는 여가비용의 차이가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집단은 54,272원, 300만 원~500만 원 미만 집단은 63,067원, 500만 원 이상 집단은 74,939원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은 집단이 현재 지출하는 여가비용과 비교해 더 많은 여가비용을 지출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vii-1). 이는 소득이 높은 집단이 여가비의 추가적인 지출을

[그림 vii-1] 소득계층별 월평균 여가비용과 희망하는 여가비용의 분포, 2024



주: 1)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4.

〈표 vii-1〉 소득계층별 연령대 차이, 2024

구분	전체	소득계층 (%)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15~19세	4.9	5.1	5.0	4.7
20대	13.8	9.9	11.2	17.3
30대	14.9	6.5	16.9	18.0
40대	17.0	5.7	18.6	21.2
50대	18.8	7.5	19.4	23.7
60대	16.7	23.3	19.3	11.8
70대 이상	13.9	42.8	9.6	3.2

주: 1)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됨.
2) 조사 대상은 15세 이상 연령대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4.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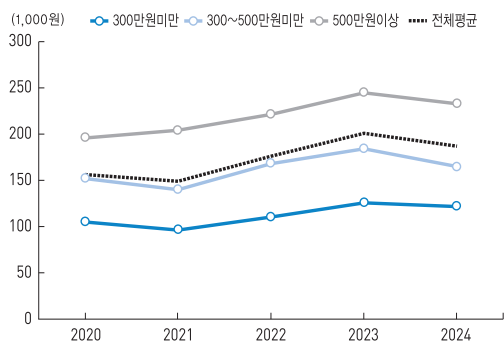
소득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가구소득과 연령집단을 교차 분석한 결과표를 살펴보면(표 vii-1),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집단의 66.1%가 60대 이상 연령집단에 분포되어 있으며, 500만 원 이상 집단의 60대 연령집단 분포는 15.0% 수준이다. 한편, 500만 원 이상 집단의 경우 연령대가 50대인 경우가 가장 많고(23.7%), 그다음으로는 40대(21.2%) 순이다. 즉 60대 이상 고령 집단이면서 소득이 낮은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용 지출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별 월평균 여가비용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3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2020년 104,774원에서 2024년 121,414원으로 16,640원 증가하였으며, 500만 원 이상 집단의 경우 2020년 195,842원에서 2024년 232,914원으로 37,072원 증가하였다. 즉 같은 기간에 소득계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과 비교해 월평

균 여가비용 지출에서 약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2021년 조사 기간(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에 500만 원 이상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 지출은 증가했으나, 300만 원 미만 집단과 300~500만 원 미만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 지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그림 v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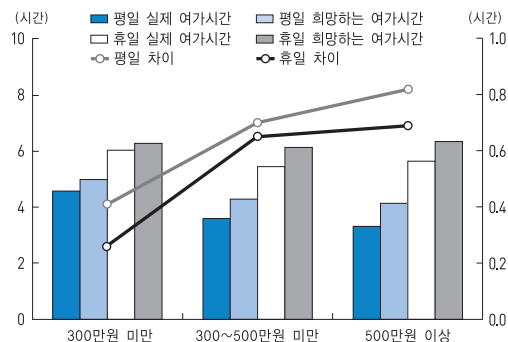
여가활동을 위한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 여가시간의 차이도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평일 하루 평균 실제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집단은 4시간 35분, 300~500만 원 미만 집단은 3시간 36분, 500만 원 이상 집단은 3시간 19분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사용하는 여가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낮은 300만 원 미만 집단의 여가시간이 가장 길지만(6시간 1분), 500만 원 이상 집단(5시간 40분)보다 300~500만 원 미만 집단(5시간 28분)의 여가

[그림 vii-2] 소득계층별 월평균 여가비용의 변화 추이, 2020-2024



주: 1) 연도별로 조사 시기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그림 vii-3] 소득계층별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 여가시간의 차이(평일과 휴일), 2024



주: 1)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4.



시간이 약 12분 더 적게 나타났다(그림 vii-3). 이는 평균연령과 혼인상태, 미취학아동 자녀 등의 변인을 고려할 때 300~500만 원 미만 집단에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일과 휴일 모두 실제 여가시간과 비교해 희망하는 여가시간의 차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실제 여가시간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득이 높은 집단은 여가활동과 관련해서 시간은 부족하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여가활동 시간은 가장 많으나 실제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가장 적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계층별로 나타나는 여가활동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여가활동 참여 개수, 여가활동 동반자, 동호회 활동, 지속적 여가활동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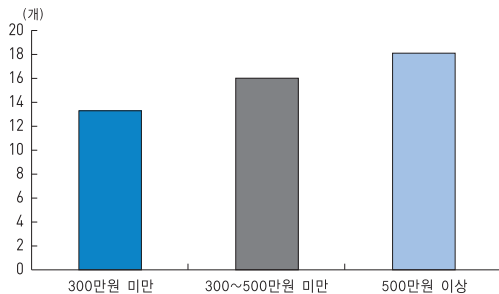
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개수를 분석해 보면, 전체 88개의 활동 중 300만 원 미만의 집단은 평균적으로 약 13개 활동,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집단은 평균적으로 약 18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4).

즉,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1년 동안 평균 5개 정도의 활동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상위 10개 활동이 TV 시청, 친구 만남, 산책 및 걷기 등인 것으로 볼 때(표 vii-2),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이러한 활동 이외에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표 vii-2〉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복수 응답) _상위 10개, 2024

구분	전체	소득계층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TV 시청	86.9	88.5	87.4	85.8
친구 만남	77.3	69.0	74.8	83.0
산책 및 걷기	77.2	82.1	76.3	75.6
쇼핑/외식	76.9	69.7	76.2	80.9
잡담/통화하기	70.7	63.7	71.8	73.3
모바일 동영상 시청	68.2	44.5	69.9	78.3
가족 방문	63.0	56.5	64.7	64.8
스포츠 경기 간접 관람	57.1	47.7	57.7	61.1
낮잠	53.7	59.6	53.2	51.3
영화관람	51.1	27.1	48.8	64.1

[그림 vii-4] 소득계층별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 2024



주: 1)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4.

주: 1)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4.

여가활동 동반자와 관련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성이던 시기인 2021년 조사에서는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이 전년대비 3.6%p나 증가하였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2021년 기준으로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은 300만 원 미만의 경우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 원 이상의 경우 61.6%로 나타났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은 2021년을 제외하고 계속 300~5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소득집단이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들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표 v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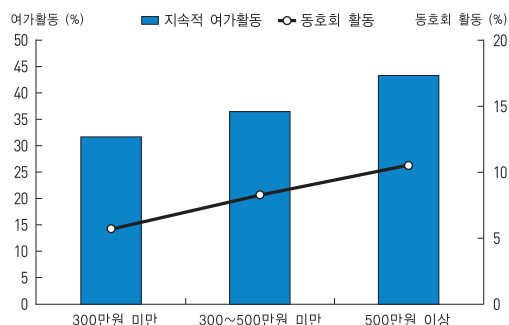
〈표 vii-3〉 소득계층별 여가활동 동반자 변화 추이_1순위 기준, 2020-2024

		소득계층			
		전체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2020년	혼자	60.0	63.2	59.4	58.4
	가족	28.8	27.6	30.0	28.4
	그외	11.2	9.3	28.4	13.2
2021년	혼자	63.6	67.7	62.2	61.6
	가족	28.8	26.4	29.7	29.8
	그외	7.6	5.9	8.1	8.6
2022년	혼자	51.8	55.1	50.5	51.1
	가족	33.5	33.8	35.9	31.1
	그외	14.7	11.0	13.6	17.8
2023년	혼자	50.5	55.2	49.8	48.9
	가족	34.0	33.0	35.9	33.1
	그외	15.5	11.9	14.3	17.9
2024년	혼자	54.9	59.4	53.8	53.5
	가족	29.8	28.3	33.0	28.3
	그외	15.3	12.3	13.2	18.2

주: 1) ‘그외’는 친구와 연인, 동호회, 직장동료, 기타를 응답한 경우가 포함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휴식 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 중 지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집단은 31.6%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0만 원 이상 집단의 경우 43.3%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위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경우도 전자는 5.7%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10.5%로 나타났다(그림 vii-5). 이로써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ii-5〕 소득계층별 동호회 활동과 지속적 여가활동 참여 비율 차이,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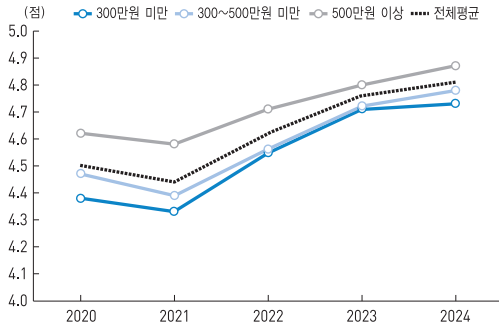


주: 1)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4.

이와 같이 소득계층별로 여가활동과 관련된 자원 사용과 활동 참여 양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서 소득계층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과 연관된다. 즉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고, 이러한 경향은 매년 같은 추이를 보인다(그림 vii-6).



[그림 vii-6] 소득계층별 여가생활 만족도 변화 추이, 202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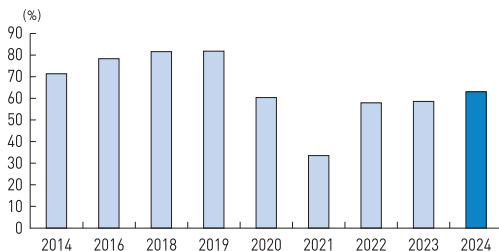


주: 1) 연도별로 조사 시기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임.
 2) 7점 척도(1: 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매우 그렇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문화예술활동

「20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2024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63%로 2023년에 비해 4.4%p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81.8%)으로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나 2020년 수준(60.5%)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이다(그림 vii-7).

[그림 vii-7]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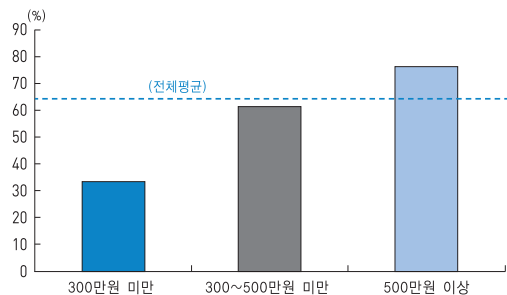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연도.

2024년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을 살펴보면, 300만 원 미만 집단 33.4%, 300~500만 원 미만 집단 61.4%, 500만 원 이상 집단 76.4%로, 소득 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그림 vii-8).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통예술공연과 무용 이외의 분야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3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1년 동안 영화를 관람하는 비율이 4명 중 1명 정도이며, 나머지 3명은 1년 동안 한 번도 영화를 관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리고 1년 동안 적극적으로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했거나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 비해 적극적인 참여활동 비율과 교육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9).

이러한 소득계층별 문화예술활동의 차이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문화예술 행사 관람 시에 느끼는 어려움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 vii-8] 소득계층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차이,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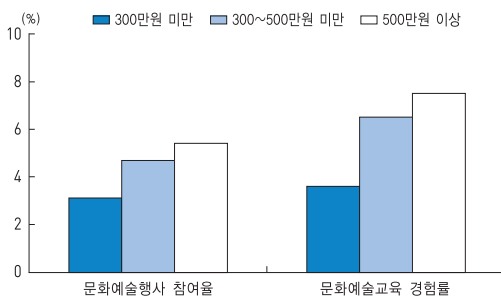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

〈표 vii-4〉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복수 응답), 2024 (%)

구분	전체	소득계층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문학행사	1.0	0.6	1.0	1.2
미술전시회	5.6	2.9	4.6	7.4
서양음악연주회	1.4	0.8	0.8	2.1
전통예술공연	2.4	3.6	2.0	2.1
연극	5.9	1.3	4.7	8.6
뮤지컬	6.4	1.2	4.4	9.9
무용	0.4	0.3	0.1	0.5
영화	57.0	24.0	55.3	71.7
대중음악, 연예	14.6	10.4	12.8	17.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

[그림 vii-9] 소득계층별 문화예술행사 참여율과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차이,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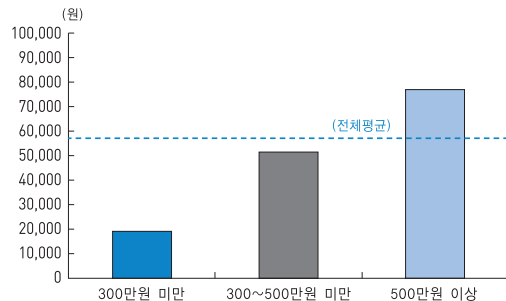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

소득계층별로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지출한 월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300만 원 미만 집단은 19,165원,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집단은 51,505원, 500만 원 이상 집단은 76,990원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과 가장 높은 집단의 차이가 57,825원으로 나타났다(그림 vii-10). 또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느끼는 어려운 점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3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18.8%),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20.0%)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500만 원 이상 집단은 비용 문제보다는 시간 제약(28.1%)의 문제를 제시하였다(그림 vii-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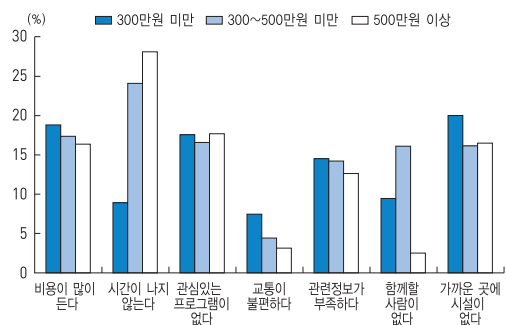
이와 같이 소득계층별로 문화예술활동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소득이 낮은 집단의 관람활동, 참여활동, 교육 참여가 매우 낮고 관련한 지출 비용도 가장 적으며,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활동의 격차가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vii-10] 소득계층별 월평균 문화예술활동 지출비 차이, 202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

[그림 vii-11] 소득계층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느끼는 어려움,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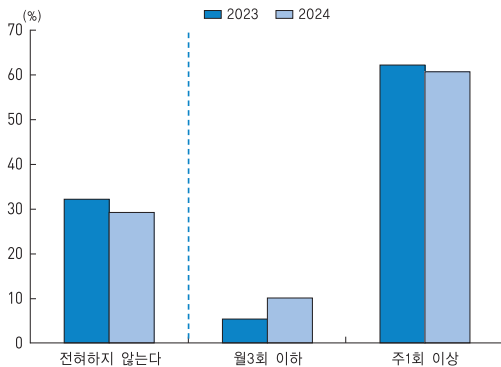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



스포츠활동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4년에 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한 비율(생활체육 참여율)은 60.7%로 2023년에 비해 1.7%p 감소하였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미참여 비율도 전년 대비 3.0%p 감소하였고, 생활체육에 참여하되 한 달에 3번 이하 참여한 비율은 전년 대비 4.6%p 증가하였다(그림 vii-12).

[그림 vii-12]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 202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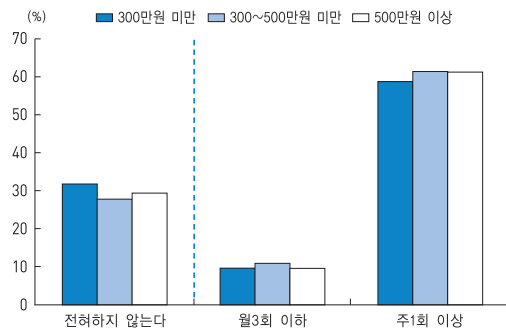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각 연도.

2024년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부와 그 빈도를 살펴보면, 생활체육에 주 1회 이상 참여한 비율은 300만 원 미만 집단 58.6%, 300~500만 원 미만 집단 61.3%, 500만 원 이상 집단 61.1%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은 300만 원 미만 31.8%, 300~500만 원 미만

27.7%, 500만 원 이상 29.3%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생활체육 참여율이 가장 낮고 생활체육 미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이 가장 높은 500만 원 이상 집단의 생활체육 미참여율은 300~500만 원 미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vii-13).

[그림 vii-13] 소득계층별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 차이, 202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24.

[표 vii-5] 체육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 (미참여자, 1순위 기준), 2024

구분	전체	소득계층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가능 시간 부족	54.6	30.4	55.9	64.8
소득수준 낮음	2.1	4.2	2.1	1.2
지출비용 부담	2.8	4.3	3.6	1.4
시설 접근성 낮음	3.9	5.3	3.8	3.3
건강상 문제	10.4	34.9	6.7	1.9
동반 참여자 부재	1.4	1.9	1.9	0.8
정보 부족	3.8	3.7	4.0	3.8
프로그램 부족	1.7	0.3	1.7	2.2
관심 부족	9.9	9.0	8.5	1.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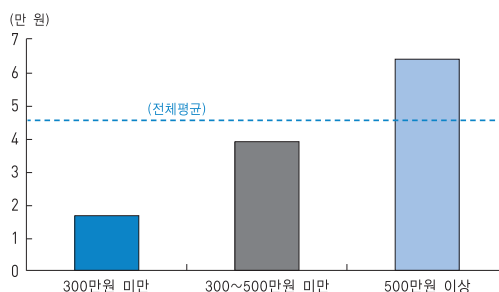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규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통해 밝힐 수 있다. 즉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64.8%는 시간 부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300만 원 미만 집단은 시간 부족의 이유(30.4%)보다도 건강상 문제(34.9%)를 제시한 경우가 더 많았다(표 vii-5).

한편, 소득계층별로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유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3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이 42.6%로 가장 높은 반면, 민간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은 7.6%로 가장 낮았다. 다른 소득집단과 비교해 500만 원 이상 집단의 경우는 그 반대로 나타나, 공공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은 28%로 가장 낮고, 민간체육시설

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은 26.5%로 가장 높았다(표 vii-6).

소득계층별로 체육활동을 하는 데 소요된 월평균 경비를 살펴보면, 300만 원 미만 집단은 16,880원,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집단은 39,220원, 500만 원 이상 집단은 63,990원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과 가장 높은 집단의 차이가 47,110원으로 나타났다(그림 vii-14).

[그림 vii-14] 소득계층별 월평균 체육참여 경비 차이, 202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24.

[표 vii-6] 소득계층별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유형 차이, 2024

(%)

구분	전체	소득계층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공공체육시설	33.7	42.6	36.1	28.0
민간체육시설	20.1	7.6	18.9	26.5
학교체육시설	6.2	2.8	6.9	7.0
직장체육시설	0.8	0.5	0.9	0.9
자가시설	2.4	1.6	2.6	2.6
기타 체육시설	7.0	11.8	5.8	6.0
이용하지 않음	29.7	33.1	28.8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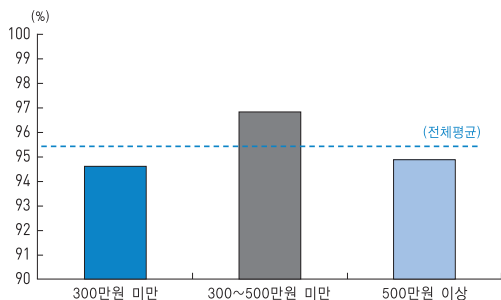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

이와 같이 소득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생활체육 참여율이 가장 낮고, 생활체육 미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민간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육활동의 참여 경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서, 소득이 낮은 집단의 월평균 지출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행

「2024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9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국내여행을 한 사람이 100명 중 약 95명 수준이며, 반대로 5명은 1년 동안 한 번도 국내여행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여행을 한 사람들의 1인당 기준으로 볼 때, 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6.31회이고, 평균 국내여행 일수는 9.69일이며, 평균 국내여행에 79만 5천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i-15] 소득계층별 연간 국내여행 경험률 차이,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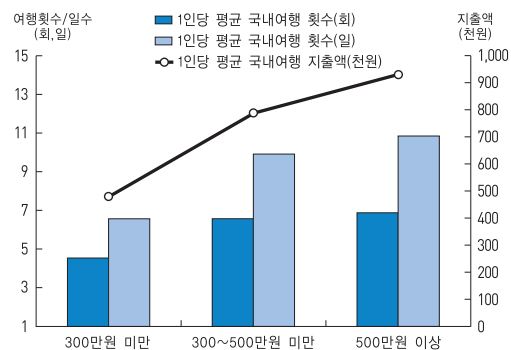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2024.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연간 국내여행 경험률은 300만 원 미만의 경우 94.6%이며, 300~500만 원 미만의 경우 96.8%,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 94.9%로 나타났다(그림 vii-15). 그러나 1인당 평균 국내여행 횟수와 1인당 평균 국내여행 일수, 그리고 1인당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에서는 소득계층별로 격차가 나타났다. 즉 300만 원 미만의 경우 1년 동안 1인당

평균 기준으로 4.5회에 걸쳐 6.6일 동안 국내여행을 하면서 48만 1천 원을 지불하는데, 500만 원 이상의 경우 6.9회에 걸쳐 10.8일 동안 국내여행을 하면서 93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16).

[그림 vii-16] 소득계층별 1인당 평균 국내여행 횟수, 국내여행 일수, 국내여행 지출액 차이, 202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2024.

또한 국내여행을 다녀오지 않는 이유에서도 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표 vii-7).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는 ‘시간이 없어서’(44.4%)의 이유가 매우 높았으나, 3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24.1%)의 이유 외에도 ‘건강상의 문제’(17.6%)나 ‘여행경비 부족’(7.5%), 그리고 ‘함께 여행할 사람이 없어서’(6.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해외여행 경험률은 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1년 동안 해외여행을 경험한 사람이 8.6%인 반면, 300~500만 원 미만 집단

은 18.7%, 500만 원 이상 집단은 29.0%로 나타났다(그림 vii-17). 그러나 해외여행을 한 사람들의 경우 해외여행 지출액은 소득계층 간에 차이가 다소 있으나 1회 평균 해외여행 일수는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그림 vii-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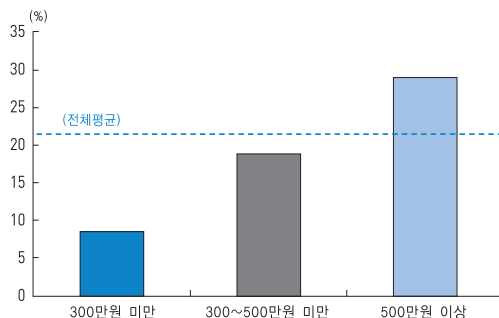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여행을 하는 횟수나 일수, 그리고 여행 지출비에서 소득 간 격차가 나타났다. 한편, 해외여행 경험률은 소득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vii-7] 국내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이유(비경험자, 1순위 기준), 2024 (%)

구분	전체	소득계층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시간이 없어서	37.9	24.1	41.1	44.4
가족, 친구와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서	18.0	16.7	18.6	18.3
최근에 여행을 다녀와서	9.7	6.2	9.6	11.9
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8.1	10.9	7.6	6.8
건강상의 문제로	7.4	17.6	4.7	2.9
여행 경비가 부족해서	5.0	7.5	4.4	4.0
함께 여행할 사람이 없어서	4.6	6.6	4.3	3.5
여행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2.7	3.1	2.8	2.4
여행 정보가 부족해서	2.5	2.7	2.3	2.4
집안에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2.3	3.2	2.6	1.5
관광시설이 불편해서	1.2	1.1	1.3	1.1
기타	0.6	0.4	0.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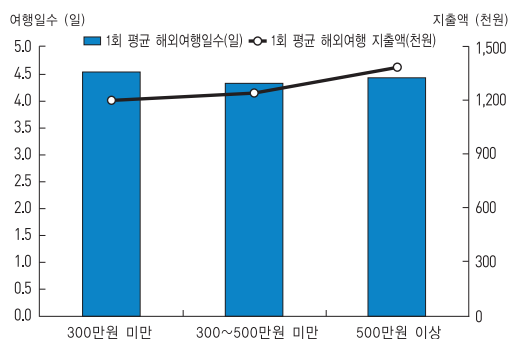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2024.

[그림 vii-17] 소득계층별 연간 해외여행 경험률 차이, 202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2024.

[그림 vii-18] 소득계층별 1회 평균 해외여행 일수, 해외여행 지출액 차이,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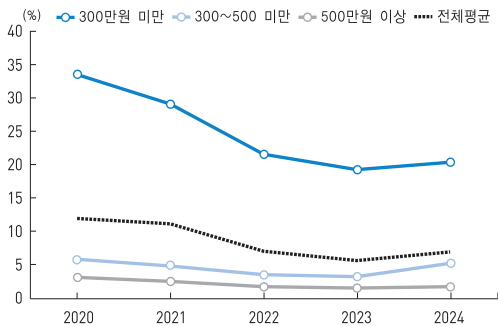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2024.

온라인 여가활동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들을 소득계층별로 구분해 보면, 300만 원 미만의 경우 2020년 33.5%에서 2024년 20.4%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 여가시간 동안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의 경우 여가시간 동안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2020년 3.2%에서 2024년 1.8%로 나타나, 여가시간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림 vii-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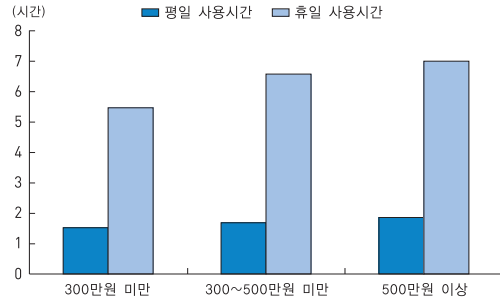
[그림 vii-19] 소득계층별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자 변화 추이, 2020~2024



주: 1) 스마트기기 미사용자는 '지난 1년 동안 인터넷, 게임, SNS 활동, TV 시청, 영화시청 등의 활동을 하는 데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2024년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온라인 여가활동의 시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온라인 여가활동 시간은, 평일에는 3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약 1시간 32분, 300~5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약 1시간 43분,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집단의 경우 약 1시간 53분으로 나타났으며, 휴일에는 각각 약 5시간 28분, 6시간 35분, 7시간 2분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계층별 온라인 여가활동의 시간 차이는 평일보다 휴일 동안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 vii-20).

[그림 vii-20] 소득계층별 온라인 여가활동 시간 차이, 202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4.

맺음말

본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소득계층에 따라 여가활동을 다르게 경험하고, 여가시간 사용과 비용 지출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소득이 연령적 분포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통해 소득계층과 연령 범위가 여가활동의 주요한 배경변수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 이외에도 많은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과거에 경험한 여가 경력(leisure career), 여가를 함께 하는 동반자, 여가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변인들이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그중에서 경제적 상황, 즉 소득계층의 변인에 집중해서 다양한 승인 통계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소득계층을 분석하는 기준을 가구소득에 기반하였으나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